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72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0월 25일 (음력 9월 6일) 수요일

지역노동자와 현장소통 갖고 진로 모색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 유동 한국노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25일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한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한국노총의 사업목표인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노총 운동방향에 대한 현장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오늘 광주·전남 방문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변화도 모색키로

총전남본부 3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조합원들과 축적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 등 생방향 소통 기회도 갖는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1막 노동의례, 주요 참석자 소개 지역본부 의장 인사말이 이어지고 2막에서는 키워드로 풀어가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행사를 통해 한국노총의 활동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

하고 한국노총의 나아갈 길을 모색할 계획이다.

토크콘서트에서 다뤄질 키워드는 ▲대선 지지후보 결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정책협약 ▲최저임금 인상 ▲노사정 8자 회의 ▲과로사회 ▲조직확대(몽쳐야 뜬다) ▲전국노동자대회 등이다.

한국노총은 이를 통해 정책협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정책협약 체결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성사시켜 준 현장 조합원들에

게 감사의 뜻을 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그 후속대책,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 제안 배경과 전망,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대책, 비정규직 조직화와 조직강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특히 이날 1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는 '정책협약 관철! 노동존중사회 건설!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이밖에 토크콘서트에서는 민중가수 윤미진, 한선희씨의 공연이 함께 하며, 현장의 질의 응답과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신봉우 기자



자중지란

최근 당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사형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과거 성완중리스트사건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역공을 펼쳤다.

이날 서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대표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심을 기다리는 처지'라며 "그런 상황 자체가 야당 대표로서 격격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대표는 홍 대표보다 훨씬 가벼운 혐의로 수사 중일 때 사퇴했다"며 "게다가 고 성완중 의원 관련 사건 검찰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 누구보다 홍 대표가 본인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조 내용에 대해 서 의원은 "홍 대표에게 물어보라면서 홍 대표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체가 쫓겨를 대겠다"고 말했다. 관련 인사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스1

전남 도서지역 치안 인력

장비 부족... '대책 시급'

경찰관 1명이 357명 담당

전남 도서지역의 치안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도서지역 파출소와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1명이 평균 357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경우 1인당 407.6명, 치안센터에서 일하는 경찰관의 경우 1인당 236.8명을 맡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이 관할하고 있는 유인도(有人島) 66곳 중 43곳에 치안센터가 설치돼 있다.

치안센터 중 순찰차·오토바이 등 기동 장비가 없는 곳도 25곳에 달했다.

이에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서지역에 범죄 발생 시 치안 공백이 심히 우려된다"며 "경찰 공무원 증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곳이 바로 전남지역으로, 기동장비 보급 및 인원 확대 등 도서지역 치안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2017 KBO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 24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용지관에서 열린 2017 KBO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에서 기아타이거즈와 두산베어스 감독과 선수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두산베어스 오재일, 유희관, 김태형 감독, 기아타이거즈 김기태 감독, 양현종, 김선빈.

광주야구장서 프로야구 최대 축제 펼쳐진다

오늘부터 KIA vs 두산 한국시리즈

2014년에 신축된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처음으로 프로야구 최대 축제 가을야구가 펼쳐진다. <관련기사 12면>

특히 서울 잠실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중립경기 폐지와 함께 6·7차전이 광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챔피언스필드 첫 우승 세리머니가 나올 수도 있을 전망이다. 광주 야구 팬들은 1982년 프로야구 원년부터 무등야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했다.

1965년 제46회 전국체전을 대비해 만들어진 경기장은 개보수 없이 수십년동안 사용돼 선수들의 부상이 속출하는 등 낙후 경기장으로 악명이 높았다.

광주시는 2010년 야구장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3년여의 공사 끝에 2013년 12월 무등야구장 옆에 지하 3층, 지상 3층, 연면적 5만5200㎡, 2만500여명의 관중 수용이 가능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완공했다.

이용규 기자



서정원



홍준표



유승민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산업현장!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할 수 있는 전남노사민정 사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 노·노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라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에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

